



워싱턴통상정보

2025.03.06

美 언론, 트럼프 상하원 첫 합동연설 Fact-Checking

한국무역협회 미주본부 워싱턴지부

※ 이하 시간 표기는 미국 현지시간(EST)

□ 3/4(화)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첫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바이든 前 행정부를 비판하며 자신의 주요 성과를 강조했으나, 美 주요 언론은 트럼프의 일부 발언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었다고 지적

*트럼프 연설 발언 낫표 기호(「」) 표시

① 「관세는 미국 내 일자리 보호를 넘어, 미국을 다시 위대하고 부유하게 만들 것임」

“Tariffs are not just about protecting American jobs, about protecting the soul of our country. Tariffs are about making America rich again, and making America great again.” (2025년 3월 4일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 중)

- (美 언론) 트럼프 주장과 달리 관세 부담은 외국 기업이 아닌 미국 내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되며, 관세 대상 품목이 미국産으로 대체될수록 정부의 관세 수입이 감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

②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대선 승리와 관세의 영향으로 전례 없는 성장과 자동차 제조공장 신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we're gonna have growth in the auto industry like nobody's ever seen. Plants are opening up all over the place. Deals are being made, never seen. That's a combination of the election win and tariffs.” (상동)

○ (美 언론) 관세는 기업들의 생산기지 이전을 유인할 수 있으나, 자동차 업체 대부분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큰 관세를 기반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공장 신설과 같은 장기적 결정을 내리기 어려움

- 혼다는 소형차(Civic) 생산 거점을 멕시코에서 인디애나주로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공식 발표는 없음. 이미 해당 州에 Civic 생산공장이 있어 신규 공장 설립이 아닐 가능성이 높음

③ 「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은 수조 달러의 추가 수익을 창출할 계획」

“We will take in trillions and trillions of dollars and create jobs like we have never seen before.” (상동)

- (美 언론) 고율 관세는 정부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트럼프가 주장하는 수조 달러의 관세 수익을 창출하려면 관세율이 극도로 높아야 함
 - 美 싱크탱크 PIIE는 보편관세 10% 및 대중 관세 60% 시행 시 연간 약 2,250억 달러의 관세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
 - 하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부과된 관세는 보호산업 내 일자리 창출에 미미한 영향만 미쳤을 뿐만 아니라 특정 산업(특히 농업) 내 일자리는 교역국의 보복관세로 인해 오히려 감소

④ 「수많은 국가가 미국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Countless other nations charge us tremendously higher tariffs than we charge them.” (상동)

- (美 언론)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약 3%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보다 낮으나, 여타 선진국들과는 비슷한 수준임

⑤ 「바이든 前 행정부로부터 경제적 재앙과 인플레이션 악몽을 물려받음」

“We inherited, from the last administration, an economic catastrophe and an inflation nightmare.” (상동)

- (美 언론) 2024년 미국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2024년 4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은 2.3%, 연간 성장률은 2.5%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 2022년 물가상승률이 9.1%까지 급등했으나, 2025년 1월 3%대로 안정되었으며, 인플레이션은 공급망 혼란과 러-우 전쟁 등 복합적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음
 - 특히 실업률의 경우 2024년 이후 4%대 낮은 수준을 유지 중

⑥ 「바이든 前 대통령 임기 동안 100개 이상의 발전소가 폐쇄됨」

“The Biden administration closed more than 100 power plants.” (상동)

- (美 언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발전소 감소는 석탄 화력 발전소 감소를 의미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 내 전체 발전소 수는 오히려 증가
 - 미국의 전체 발전소 수는 2020년 11,070개에서 2023년 13,257개로 증가
 - 다만, 석탄 발전소 수는 284개('20)에서 227개('23)로 감소하여 전체 발전소 수 증가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신규 건설에 따른 결과

⑦ 「바이든 前 행정부가 신규 석유 및 천연가스 채굴 허가를 95% 감소시킴」

“The previous administration cut the number of new oil and gas leases by 95%.” (상동)

- (美 언론) 미국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은 이미 기록적인 수준으로 원유 생산량의 경우 2023년 하루 1,290만 배럴을 경신하여 2019년에 세운 이전 기록을 추월

⑧ 「바이든 前 행정부의 모든 환경규제(특히 전기차 판매 의무화 정책)을 폐지하여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

“We ended all of Biden’s environmental restrictions that were making our country far less safe and totally unaffordable. And importantly, we ended the last administration’s insane electric vehicle mandate, saving our autoworkers and companies from economic destruction.” (상동)

- (美 언론) 트럼프는 이전 행정부의 환경규제를 철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법적 절차가 아직 남아있어 해당 규제는 여전히 유효함
- 또한, 바이든 前 행정부가 전기차 판매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은 사실이나, 강제성을 띤 의무화 조치는 아님

⑨ 「미국은 부패한 WHO에서 탈퇴함」

“I withdrew from the corrupt World Health Organization.” (상동)

- (美 언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직후 WHO 탈퇴를 통보하는 서한을 UN에 공식 통보(1/23)했으나, 탈퇴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점은 2026년 1월이 될 전망

⑩ 「모든 정부 검열을 중단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회복시킴」

“I’ve stopped all government censorship and brought back free speech in America.” (상동)

- (美 언론) 트럼프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동시에 이를 제한하는 조치 단행
- 멕시코만(Gulf of Mexico)이 아닌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 표현을 거부한 AP 통신의 백악관 집무실 및 대통령 전용기(Air Force One) 출입을 금지하고, 불법시위를 허용하는 학교에 대한 연방 지원금 지급 중단을 엄포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조치를 다수 시행

참고 자료

3.5(수) New York Times, Fact-Checking Trump’s Address to Congress

3.5(수) National Public Radio, Read NPR’s annotated fact check of President Trump’s address to Congress